

학교·집에서 책 읽고... 토론하고...

전북교육청,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사업' 추진

'신규사업' 독서토론 성장학교 64개 학교 선정

아침 10분 독서, 정규과제 내 독서수업으로 확장

학급 단위 도서관 활용수업 확대·책린지 캠페인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집에서 가족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토론 문화를 만드는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와 집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상적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신규 사업으로 독서토론 성장학교 64개교를 선정해 학교별로 독서토론 교육 활동 자료 제작비, 강사비 등 최대 300만원의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기당 1회 이상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침 10분 독서학교 프로그램은 한층 강화한다. 아침 10분 독서를 정규과제 내 독서 수업으로 확장해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420개교에 학교당 최대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사업 우수모델 개발을 위해 중점·선도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국어 중점학교 6개교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3개교 등 총 9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독서



용와초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 10분 독서학교 프로그램.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토론 활동의 기반인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학급 단위 도서관 활용 수업을 확대해 각 교과 수업 내 독서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금요일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주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읽는 책린지DAY 독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양원 문예체전강과장은 "독서와

토론이 교실과 가정의 일상이 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힘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정이 연결되는 독서생태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배움이 교실을 넘어 삶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신입생의 성공적 대학생활 지원

전북대, 28~30일 'JBU 열품캠프' 교내 일일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예비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기초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JBU 열품캠프'를 오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JBU 국제컨벤션센터와 생활관 등 교내 일일에서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예비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JBU 열품캠프'는 신입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팀 기반 액티브 러닝 프로젝트, 재학생 선배들이 참여하는 '또또무 학생 특강'(대학생 패널토크), AI를 활용한 대학 학습 전략 워크숍, 캠퍼스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도록 지원한다.

특히 '또또무 학생 특강'은 재학생 선배들이 직접 참여해 진로 설계와 목표 설정 경험 대외활동과 해외 탐방 사례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크 형식으로 진행돼 신입생들이 현실적인 대학 생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AI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AI를 활용한 학습 전략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학습 방법을 배우고, 체험형 실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대학 학습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활동도 진행된다. 학생들은 조별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며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팀워크 역량을 쌓게 된다.

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200명이다. 참가비는 전액 지원된다. 캠프 수료자 가운데 우수자에게는 국제협력부와 연계해 해외 어학연수 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캠프 2일차인 29일에는 양오봉 총장이 직접 특강에 나서 전북대의 주요 성과와 학생 중심 대학으로의 비전을 예비 신입생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마음을 맡기는 일" |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출판기념회 성료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1천여 명의 참석자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의 신간 '따뜻한 학교, 설레는 교육'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 홀에서 1,000여명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장은 단순한 출판 축하 자리기가 아니었다. 전북교육의 현실을 참석자들과 함께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이들의 내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고민하는 공감과 성찰의 교육 포럼에 가까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교육계,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학부모·교사·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끝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이 전 총장은 이날 보편성이 아닌 모험성이라는 화두를 꺼냈다.

지금 시대는 AI와 기술 혁신이 산업과 교육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대이므로 더 이상 정답을 잘 찾는 능력만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앞으로의 교육은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가운데, 이남호 전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남호 전 총장은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표를 던졌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대목은 전북교육 재정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전북 교육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 전 총장의 공약을 학부모가 질문하자 이 전 총장은 현재 약 4조4,000억원 수준인 전북교육청 예산을 5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 교부금에만 의존해 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보전복지부·성평등가족부·과기부·행안부 등 타 부처의 교육 관련 예산을 적극 연계해 전북교육 현장으로 끌어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행사장에서는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출판기념회 중 상영된 영상 편지는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들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뒤돌아보는 부모의 마음, 교문 안으로 들어간 아이의 하루를 걱정하는 어른의 시선이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졌다.

책에는 화려한 성공담 대신, 휴수저 소년으로 성장해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의 고백이 담겼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실패와 좌절, 그리고 교육이 삶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담담한 언어로 풀려 있다.

이 전 총장은 "이 책은 과거를 정리하는 회고록이 아니라, 교육을 고민해 온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라며 "전북의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과 지역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는 인성과 리더십을, 학생은 AI 시대의 교육을, 교사는 입시와 현장의 현실을 질문했다.

이 전 총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하며 "교육은 혼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민호 기자·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관계회복 숙려 성공적인 현장 안착 돕는다

올 3월 초등 전 학년 확대... 관계조정 역량 강화 등으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계회복 숙려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관계조정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월까지 교사 300여명, 교감·교감 400여명, 도교육청 관계조정지원단 100명이 참여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가 운영된다.

교사 연수는 △학기초 관계형성 프로그램 △비폭력 대화법 △갈등 분석 기법 △일상적 갈등 조정 방법 등 학



급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감·교감 및 교감자적연수 이수자 등 관리자 대상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도 운영한다.

학교 관리자들의 관계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연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조정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회복적 정의의 이해부터 학교 갈등 상황에서의 관리자의 역할, 조정의 이해와 절차 배우기, 조정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수를 이수한 교원의 실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관계조정) 교원 연구회 45개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문성 신장 통한 학생평가 운영 내실화

전북교육청, 28일까지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평가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26~28일까지 전주대학교 자유관에서 초등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는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전문가인 충남대학교 김선교 교수의 강의와 교과별 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생평가의 이해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등의 연수를 통해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서논술형 평가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서울·인천 등 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서논술형 평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앞으로 △서논술형 평가 역량강화 연수 △단위학교

서논술형 평가 컨설팅 △서논술형 평가 지원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정서적 고충 해소와 건강한 직장 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운영되며,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90만원), 집단상담은 연간 4회(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2026학년도 국립군산대 정시 경쟁률 전년 대비 2배로 '경쟁' 학사제도 혁신·학생 복지 강화 등 정책 주요인

국립군산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위 내 경쟁률이 5.53대 1을 기록, 지난해(2.85대 1) 대비 두 배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입시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최근 추진한 학사제도 혁신과 학생 복지 강화, 지도·취업 지원 확대 등이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26일 군산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수는 위주 전영은 7.33대 1, 다군 일반전형은 5.62대 1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영어영문학과 14.60대 1, 언어인문학부 13.00대 1, 철학과 12.00대 1, 간호학과 11.25대 1 등에서 경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 같은 경쟁률 상승은 단순한 증가가 아닌, 대학의 전망위적 교육혁신 정책 추진과 학생 중심 지원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률 5.53대 1 기록

는 평가가 힘을 안고 있다.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 전과도 학위 취득도 학생 자율로

국립군산대는 전국 최초로 B·E·S·T 학사 체계를 도입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이 체계는 소속 제한을 최소화하고(Boundless), 졸업 시기 선택을 유연하게 하며(Extendable), 전과 전학을 자유화하고(Shiftable), 전공 선택 시 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Thresholdless) 것이 특징이다.

'학년·학과·횟수 무제한'의 3무(無) 전과제도는 대표적인 교육혁신 사례로 꼽힌다. 전과 인원은 2022학년도 76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165% 증가했으며, 전과 후 평균 학업 성적 상승(백분위 3.7점)과 96%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24학년도부터 운영 중인 모듬영 컨버전스 학위과정(MCD)도 경쟁률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된다.

해당 제도는 기업과 지역 사회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과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전공 목표를 조합해 맞춤형 학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25학년도 기준 29개 과정에 399명이 참여했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3점으로 나타났다.

AI, 로봇, 첨단소재,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 측은 관련 MCD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등록금은 최저 장학금 혜택 등 학생 복지는 최고

교육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생 복지 역시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립군산대는 2025학년도 연간 평

균 등록금은 약 300만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26학년도 등록금도 동결했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18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이다.

그에 비해 'KSNU 지역인재 장학금', 비교과 활동 지원형 '마일리지 장학금', '안심생활지원 장학금' 등 성적·소득·맞춤형 학비 감면의 장학금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학년도 기준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302만 원에 달하며, 86.7%가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77.4%로 전북권 4년제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주, 익산, 김제, 서천·장항 지역에 22개 노선 31대의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99여 원을 투입한 최신식 기숙사 확충, 천원의 부상 확대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정책이 더해지며 학생들의 체감 복지가 크게 강화됐다.

국립군산대 관계자는 "우거·농학·사비·장학금 등 기본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학생의 학업 몰입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군산대는 2025학년도 연간 평